

“가족끼리 대화늘고 화목 다져요”

가족법회 운영사찰 불자들 한 목소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위기 상황이다. 가족 간 소통 부재로 빚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통계청은 4월 26일 내놓은 ‘2010~2035 장래가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10년 1천7백36만 가구였던 가구수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2035년 2천2백26만 가구가 늘어날다. 이는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나 부부 가구가 가족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전통적 가족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해체 시대에 불교계의 역할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현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조계종의 경우 가족법회 운영 사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도 파악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행정 입안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유탁 포교원 인도팀장은 “물리적으로는 사찰의 공간적 제약이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프로그램, 부부 프로그램 등 상황이 달라 개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몇몇 사찰들을 중심으로 가족법회를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초청 가족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심사찰인 인천불교회관은 1층 어린이 법회, 3층 청소년 법회, 4층 가족 법회가 진행된다. 이들 법회를 위한 승합차 4대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 정도회는 매주 일요일 가족 함께 만들어 가는 법회를 진행 중이다. 오전 11

시 열리는 일요일에는 스님 없이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법회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부모들이 가족법회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법회에 참석한다.

이은주 지도교사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20명 가량 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부모들이 법회를 보는 동안 율동 레크리에이션과 독서, 도심 야외활동 등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한국 사회 가족해체 현상 뚜렷

일회 가족법회 의무화 해야

인식 개선·법회 모델 개발 시급

하지만 일선 사찰의 가족법회는 가족이 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 이에 대해 고명섭 포교연구실 연구원은 “현재 가족법회는 형식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찰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법회를 가족법회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 역시 2009년 수도권 사찰 포교역량 조사 세미나에서 가족법회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2011년에는 지도자 육성 교육 과정도 진행했지만 별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

한주영 지혜로운여성 사무처장은 “2011년 포교원 지원을 받아 가족프로그램 지도자 과정인 애착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어린이법회 교사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월 1회에 가족법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지만, 교육만 될 뿐 확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원 어린이법회 교사들이 극소수인 불교계 상황에서 법회 봉사자들이 일요일 법회에 토요일에 참여하는데 난색을 표한 것이다. 또 상당형 가족법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을 찾는 사찰도 없었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중단 차원에서 매월 1회 가족법회의 날 지정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다 종교도 치유, 힐링 개념으로 부자(父子)·부부(夫婦) 클리닉 개념으로 신생활을 접근하고 있는 만큼 일선 사찰 상황에 따른 법회 모델 개발부터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부부·가족법회 모범사찰은 어디?

사찰서 봉사하고, 아이들과 놀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며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주성한 파리공원 옆에 자리한 도심 사찰이다.

올해로 19년을 맞는 부부불자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 부부법회를 봉행하며 다양한 신생활을 펼치고 있다. 주로 4~50대 부부들로 구성된 불자회는 600여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저녁예불 후 진행되는 부부법회에는 부부를 위한 법문, 기도정진 등이 진행된다.

부부불자회는 각 지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동지역에 10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가족법회 외에도 가정 법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산행·성지순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동호회 등 사회활동이 필요한 이들이 신생활과 신행을 돕기 위한 봉사분과, 산조분과, 홍보분과, 교육분과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www.buban.org)를 통해 수행 교류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노인복지회관, 승가원, 파주 치매센터, 양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02)2646-4975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40대 이상 전문직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실제 일요일 법회도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가족법회로 이어지고 있다. 지하에는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으며, 지도법사 스님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을 위한 법회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센터의 문화강좌에서도 ‘가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빠와 함께 하는 사찰음식’ 강좌는 많은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주지 법정 스님이 지도하는 ‘마음의 길을 걷다’는 주말 가족과 함께 걷기 명상에 나서는 프로그

램이다. 국제선센터는 “교육 환경이 뛰어난 곳이지만 청소년 문제가 많다”며 “청소년 문제의 근원은 가족에게 있는 만큼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02)2650-2214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백천사(주지 무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가족법회를 열고 있다. 한 가족당 2~3명씩 30여 명이 매월 말 법회에 참석해 무구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스님은 <불교를 알고 싶어요>(우리출판사)를 법문 교재로 불보살·경전·기독교·외에도 가정 법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산행·성지순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법안정사, 부부법회로 화합 도모

국제선센터, 가족 소통 강좌

백천사, 불교 궁극중 친절히 해소

법회에 참석하는 가족들은 108배 하기, 사경 등 무구 스님이 내주는 수행과제를 집에서 함께 한다. 과제를 하며 도반으로서 서로 격려해주시니 신심이 깊어지고 힘도 난다.

무구 스님은 “가족 법회를 시작하고 가족들이 사찰 내 봉사활동, 연등행사에도 함께 참여하니 사찰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구 스님은 “꼭 일요일에만 법회를 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족법회, 신묘장구대다라니 108 독송회, 하루칠야정진 등 불자들이 어떤 수행과 법문을 원하는지 조사해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031)577-6433

신종일·노덕현·이이나 기자



서울 법안정사 부부법회에 참석한 부부불자가 정답게 손을 잡고 경전을 읽고 있다.

독거노인 이웃 절들이 보살피자

불교계, 은정의 손길과

정서적 문제해결도 나서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되면서 독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노인 인구 5백만 명중 독거노인은 1백만 명(20%)에 달한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

최근 서울 노원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증 및 자살 선별검사’ 결과 100명 중 15명이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5.2%는 자살을 시도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1개월 이내에 자살충동에 시달렸다는 응답자도 3.4%에 달했다.

불교계는 복지관과 사찰들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물질적 지원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지원되는 서비스는 도시락·밀반찬·김장 등 식생활과 관련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 서비스로는 목욕, 이·미용, 신체수발, 세탁 등 가사를 비롯한 개인 보조 활동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또 어르신들의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 서비스와 정서함양을 위한 호도관광서비스 등도 진행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광)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과 주1회 밀반찬을 지원한다. 또한 이송목욕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발마사지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들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고 가정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을 직접 후원자와 연계해 지속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매주 400가구를 대상으로 노인 복지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해야 한다. 사찰이 직접 독거노인 정서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 사상을 복지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전문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4@hyunbul.com

■ 불교계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

기관 및 사찰	서비스 내용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도시락 지원, 밀반찬 지원, 이송목욕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발마사지, 나들이 지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밀반찬 지원, 의료기관 연계, 미용 서비스, 세탁 서비스, 가정봉사 진행, 생계비 지원
수호사 효림원	전화 상담, 밀반찬 및 간식 서비스, 야외나들이 지원, 가정봉사관리, 후원금 지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상담, 가사 지원, 의료 지원, 나들이, 외식, 생신잔치, 후원금 지원, 차량지원 서비스
김홍대이케어센터	무료급식, 도시락지원, 밀반찬지원, 당보반찬지원, 영양죽지원, 건강음료지원
금오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파견, 가정상담 및 안부전화 서비스, 밀반찬 서비스, 물품지원, 이미용 서비스 등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목욕 서비스, 가사지원, 안부전화 및 방문, 밀반찬 서비스, 생활상담 등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식배달 서비스
대전서구노인복지관	목욕도움, 가사지원, 시장보기, 밀반찬 지원, 개인활동 동행, 일상업무 대행
동여수노인복지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두송노인복지센터	이미용 서비스, 목욕, 가사지원, 외출동행, 일상생활지원, 우애 서비스
미아기정병사원파견센터	신체수발, 가사서비스, 개인활동 보조, 밀반찬 서비스, 밀반찬 지원, 생신 잔치, 나들이 지원, 물품지원
매화노인복지센터	밀반찬 지원, 간식지원, 식사배달
불광노인복지센터	밀반찬 지원
양양노인복지관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김치지원, 난방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나들이 지원
아주시노인복지관	가정봉사파견, 상담 및 교육, 후원금 지원, 이미용 서비스, 목욕, 용변수발, 집수리 지원 등
역촌노인복지센터	밀반찬지원, 무료급식, 세탁 서비스, 물품지원 등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가정봉사 파견, 차량 지원, 주거환경 개선, 물리치료, 세탁지원, 이미용 서비스, 후원사업 지원 등
춘천시립노인복지회관	도시락배달, 밀반찬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 서비스, 심리상담 등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도시락 지원, 사례 관리, 밀반찬 지원, 특식 지원, 김장 지원 등
청천노인복지센터	도시락 지원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간병서비스, 무료급식 및 밀반찬 지원, 나들이 지원, 병원동행, 청소 및 빨래, 안부전화 등
이현노인복지센터	도시락 지원
송파노인복지센터	시장보기, 청소 및 빨래, 외출보조, 생활상담, 밀반찬 서비스, 행정업무대행 등
효담채	도시락 지원, 안과진료, 무료급식, 어르신고운집안들기 지원 등
연천군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밀반찬 서비스, 김장 지원, 이미용 서비스, 전화 밀반찬 서비스, 여행 지원 등
개발읍과 나눔	무료급식 제공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이미용 서비스, 김장지원, 차량 지원, 빨래 서비스, 특식 지원, 밀반찬 서비스 등
부천시립노인복지관	도시락 지원, 주거환경 개선, 세탁 지원, 차량 지원, 야외 나들이 지원 등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밀반찬 서비스, 김장 지원, 도배, 청소, 결혼후원, 안부전화 및 상담 서비스, 생일 잔치 등
맑고향기롭게	밀반찬 봉사, 밀반찬 봉사 등
천안 각원사	무료급식, 목욕봉사 등
서울 봉은사	선재무료진료소 실시
서울 조계사	병의원 무료진료 실시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教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불기 2556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울리며 “용성큰 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니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윤봉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추서